건강한 교회생장의 노약우가 한눈에 모이는 목회중합전문제 :

Church Growth 교회성장

12 2019

특집 | Perspective

2019 한눈에 보기

- 미셔널 처치를 - 교계 10대 뉴스
- 2020년 전명 - 특집 다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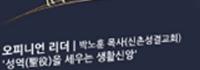
12

목의자의 설교준비를 돕는



Thirth - 714. parkous C1+ 4+2+4.03 RITH OF THE WAY · See Erit + 花草 *香袋を1987 11 .. 1015 h. Digita ** + 7 1 1/2 1/2 CHURHOLDS & 165至111

Bullion Co.



01. 맑은물가 02. 평신도 사역자 훈련 프로









Church Growth

2019/12 December 건강한 교회성장의 노하우가 한눈에 보이는 목회종합전문지

COLUMN 017

019

020

OPINION LEADER

022





PERSPECTIVE

2019 한눈에 보기

032 Part 1. 2019 교계 10대 뉴스

038 Part 2. 특집 다시 읽기

044 Part 3. 선교적 교회 운동, 1년의 기록

052 Part 4. 모두가 깃수가 되는 시대 최현식 목사(아시아미래연구소 부소장)

○6○ 〈누크의 묵상드로잉〉 공윤택 작개(누크하우스)

MINISTRY

062 **행복한 목회현장 속으로** | 장덕한 목사(디자인 3.0 Church)

'지금은 개척의 때입니다'

070 **글로벌 리포트** | 홍성필 선교사(일본) '열도의 중심, 부흥의 중심'

U 엉│ 목회 매뉴얼 | 강장식 목사(모두가행복한교회)

'예술과 치유가 공존하는 작은 도서관 목회 Ⅱ'

↑ **처치닥터** | 오황동 목사(원주순복음중앙교회)

'목회자 모임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당회원 간 분쟁을 조절하는 방법'

'목회자의 번 아웃을 예방하는 방법'







열도의 중심, 부흥의 중심

글 **홍성필 선교사**(일본)

군마(群馬)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경(東京)도 오사카(大阪)도 아니고 군마라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동경에서 살았던 저에게도 군마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보면 동경과 같은 관동지방이요, 신칸센을 타면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이지만, 저에게 군마는 무관심한 영역이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게 된 부친을 따라 일본에 온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1976년. 일본에 사는 12년 동안 저희 가족이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는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가 퇴직하거나 한국으로 발령이 나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도 한국에서 졸업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따라, 대학생 때부터는 홀로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신학을 시작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부모님도 오랫동안 믿음생활을 해오셨기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몇 년 후, 신학교 과정을 마치신 부친이 대사관 에서 퇴직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는 내심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도 부모님과 저에게 '각자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걱정하지 않았습 니다. 다만, 생활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자 구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일본어 번역을 통하여 대학에 다니면서도 안정적 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소식을 접한 것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동경에 이어 오사카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셨던 부친이 1994년 군마현에서 다카사키중앙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아버지와 저는 각자의 길을 살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본어학원에서 강의하며 교재도 출판했습니다. 한국에서 점점자리를 잡았고, 다카사키중앙교회도 우여

곡절 끝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후 10 여 년 동안 아버지와 저는 그야말로 각자 의 길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세 번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마현 이카호에 있는 한 미술관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를 인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유럽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을 5분의 3 규모로 재현하였으며, 실제 성전 내부와 똑같이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최후의 심판〉 등을 비롯한 아름다운 벽화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아가려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 미술관을 인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미술관을 개조하여 교회



로 쓴다고 하셨지만, 저는 큰 관심이 없었 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될 줄은 꿈에 도 몰랐습니다.

몇 년 후, 일본에서 네 번째 소식이 또 전 해졌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70세가 넘었 습니다. 후임자를 찾아보려 했으나, 신앙 은 물론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잘 알고 일 본 선교에 사명감을 가진 인물을 찾기가 힘 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구나 출석 성도 수가 열 명도 채 되지 않아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문득 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서 가장 일찍 복음을 받아 들여 순복음동경교회에 다녔고, 한국에서 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살았던 제게 언어 나 문화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제 결단뿐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운명의 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이때에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것이 아닐까, 이때를 위해 나를 어렸을 때부터 12년간 일본에 살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 앞 에서 결단했습니다.

선교생활 우여곡절

선교의 불모지라는 일본에서도 지방의 작은 도시, 시내 중심지로부터 떨어진 교 회, 불리한 조건뿐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에는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정적인 후 원을 해주시는 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선교 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라면 처음에 한인 대상 으로 시작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는 한 국인도 별로 없습니다.

초기에는 제 경험을 살려 인연이 닿은 곳 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선교활동을 병 행했습니다. 물론 선교에 온전히 집중하기 는 힘들었으나, 이 방법도 하나님께서 열 어 주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이었습니 다. 순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보였으나 이로 인하여 저의 종교비 자 갱신에 어려움이 생겼고, 제 아내의 가 족비자 발급이 반려되어 4개월 간 이산가 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비자가 언제 나 올지 기약이 없었기에 참으로 힘든 시간이 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사람의 방법 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며 하나님은 하나

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러 왔다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에 의지하여 선교비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이를 하나님의방법이라고 합리화한 것입니다. 정작 주님의 일은 소홀히 하게 되고 어느새 돈벌이를 위해 일본에 온 것이나 다름없게 되고말았습니다.



저는 교회와 가정을 위한다고 세상일을 하였으나, 제가 한 일로 인하여 도리어 교 회와 가정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이 일 을 통해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 선교하겠 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 자 오히려 여기저기서 후원의 손길이 들어 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멀리 미 국에서, 하와이에서, 싱가포르에서, 한국 과 일본에서 후원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일로 격려해 주시는 분도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비자 문제역시 원만히 해결되어 이번에는 저와 아내모두가 무사히 중장기 비자를 받아 좀 더안정적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이야기

1. 찾아가는 전도

매주 주일 오전 11시부터 드려지는 예배는 공식적으로 담임을 맡고 있는 부친을 대신하여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국 성도님뿐이어서 우리말로만 예배를 드렸으나 최근 일본인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최근에는 한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예배를 진행합니다.

주중에는 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마현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와 현지인 전도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일본 현지인 선교를 위해 일본에 왔으나이곳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혹은 예수님을 떠난 한국 성도 역시 일본 현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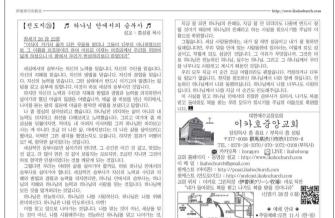
선교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곳 군마현은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국인이 그리 많이 거주하지는 않으나 군마 의 현청 소재지로 행정중심지인 마에바시 시, 신칸센이 지나는 교통중심지 다카사키 시를 중심으로 약 20여 개의 한국인 사업 장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도 10여 곳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들을 돌면서

주일 예배 말씀을 요약한 전도지를 배포하 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거리가 멀어 혀 실적으로 교회 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 에 있는 사업장도 찾아갑니다. 이유는 곳이 제가 지금 찾아갈 수 있는 '땅끝'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교회가 많지 않아 전

도자도 적습니다. 저라도 가지 않으면 그분들은 평생 복음 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분 들이 인근에 있는 교회에 나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서 방문하고 있 습니다.

사업장에 찾아가 전도지를 드 릴 때는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 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한두 번 고 마는 것이 아니니 부담스럼 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가겠다는 빈말로 미안함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면전에서 싫은 티를 내기도 합 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 는 사업장에는 다시 가지 않습



主は私たちに広い所を与えて、私たちがこの地でふえ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 世の中の随負値たちは、自分の駆力を保じています。自分の手段を保じ ています。自分の知恵を信じています。自分の方法を信じています。自分の の経験を信じています。自分の所述を信じています。自分の方法を信じています。自分の の経験を信じています。自分の能力を信じています。そして必ずや勝って みせるという信念を持って勝負に臨みます。これが世の中の勝負額たちな

いがなかったので、その名をレホボテと呼んだ。そして彼は言った。「今や

月 神様の中での勝負師 月

イサクはそこから移って、ほかの井戸を掘った。その井戸については争

贷款: 进作职 转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승부사인 것입니다.

【伝道用紙図】

創世記 26章 22節

しかし、自分の努力と手段と知恵と方法と経験と能力を頼りながら生きて いこうしていたヤコブの生涯は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エジプトの王である ファラオに会った席で、年齢を尋ねる王の質問に対してヤコブは、 いろいろな わざわいのある日々を選ごしてきた答えます。

自分なりに一生懸命。生きてみようと思いました。神のみを頼る人生では 目がなり、一生態が、生きこみまりと思いました。そのみを頼らん生では なく、私の能力も頼りながら必死に生きてきました。そして、ここにわたくしの 想像を少し加えるとしたら、少なくとも自分の父イサクのように大洋神様だけ を頼って生きるのではなく、より良い人生、父よりよい人生を送ってみようとし ました。あるいは、そのようなつもりだ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結果は した。あるいる。そのなりなりものというというというというというとうできます。わざわいの日々だったというととでもしまります。 世の中の勝負額としてのみ生きていこうとすれば、その瞬間は勝ったよう

でもあり、かっこよく見えるようでもあり、より多くのものを得られたかのように 見えるかも知れませんが、少し経っと、それがわざわいの多い人生だったと いうことを悟るようになるのです。

それでは、我々はどのような生活を生き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か。またに神の中での勝負師として生き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世のの勝負師たちが自分の努力と手段と知恵と方法と経験と能力を頼るなら 神の中での勝負餅は、神の知恵と神の力と神の愛を信じることです。神に 神は全能であります。神は私を愛しておられます。神は私のために備えら

れます。神は私を導かれます。アーメ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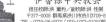
これを信じて前に進むことです。自分を信じるのではなく、世の中を信じ るのではなく、私を愛してくださる金能の神を信じて進むこと、これこそがまさしく神の中での勝負餅なのです。今うまくいけば、神の恵みであり、今いまくいかなくても、後で必ずうまくいくはずだから、神の恵みということ信じる 替様であらんことを主の御名においてお祈りいたします。 そうです。世の中の人々にとっては、自分がうまくやると成功であり、自分

がしくじると失敗ですが、私たち侵仰の中にいる人にとっては、ああなっても 成功であり、こうなっても成功なのです。その理由は何でしょうか。それは、 まさに神は全能の神であられるからです。神に選ちはありません。そして、

その神が私たちをあまりにも愛しておられるからです。 私たちが、今この瞬間、少し苦しくても大丈夫です。心配したり、争う必要 私と井に歩みます。神様が私をとても聞しておられます。神様が私を今この 短期は、1節ハアノが士...

も導いてくださっているのです。 のことを信じて、神の中での真の勝負師として、入るときにも祝福され 出て行くときにも祝福される皆様でありますよう、主の御名によってお祈りい たします。 🖽

伊香保中央教会



TEL: 0279-26-3370 / 070-1072-0109(副校報) □ LINE(ライン): ikahoh 教会ホームページ・動画メッセージ: http://japan.ikahochur

mail: ikahochurch@gmail.com ポッドキャスト: http://jcast.ikahochurch アクセス: 伊香保グリーン牧場のすぐ手前



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찾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를 반겨주시든 말든 규칙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면본체만체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남의 나라, 한국인이 별로 없는 지방 소도시에서외국인 신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없다고는 합니다만, 오랜 타향살이에남모를 사연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에 전도를 다닐 때 저를 반기지 않는 분들을 보면 분하기도 하고 다음에 그 집에 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며 여러 가지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위로가 되

는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 일을 진정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일본 현지인 대상 전도는 저희 교회 인근 또는 마에바시 시나 다카사키 시 등의 주 택가를 돌며 전도지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직접 전 달했지만 외판원 등으로 오해해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지도 않거나 기독교 전도에 대 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우체통에 넣는 방식으로 대체했습니다.

2. 영상을 활용한 선교

한 번 전도를 나갈 때마다 2, 300장 정도를 돌리지만 읽지 않고 버려지는 전도지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식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설교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인터넷과 미디어기술의 발전이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술의 발전에 힘입어 루터 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 님의 목회 사역은 방송이라는 새로운 미디 어에 의해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인 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전 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에 화려한 전문 방송 장비는 없으나,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일했기에 사람 앞에 서는 것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인터넷 강의도 했었기에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순간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히 준비시키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일본어 설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에서 생활했기에 생활 일 본어는 문제가 없었지만 설교하는 것은 별 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교회를 다녀 본 적이 없기에 말씀을 일본어로 전달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 본어 설교 영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망설 이고만 있던 중에 뜻밖의 메일이 영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영국의 한 지방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메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에게 일본인 친구에게도 신앙을 전하고 싶으니 일본어 설교 영상을 올려줄 수 있다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랍고 부끄러웠습니다. 완벽한 일본어 설교에 자신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일본어로 말씀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어 저는 한국어, 일본어 2개 국어로 말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블로그, 팟캐스트, 팟빵 등 가능한 여러 곳에 영상을 업로드 하였으며, 주일설교 실황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하여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회 소식을 나누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 있는 한국계, 일본계 교회에 저희 이카호중앙교회의 선교소식과 동영상 링크를 이메일을 통해 매주 발송하고 있습니다.

3. 기린성경필사

올해부터는 새롭게 말씀 중심의 믿음을 위해 성경필사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 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으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작 말씀 전체를 온전히 마음에 새기는 일 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을 비롯 하여 세계적으로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 고 이단이 득세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반을 둔 믿음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 통독이나 암송, 인터 넷 타이핑 등 여러 방법이 있으나. 저는 굳 이 손글씨를 활용한 철저한 아날로그 방식 을 고집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불편하지 만 가장 깊은 묵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손글씨를 쓸 일이 없는 바쁘 고 빠른 세상입니다만 그렇기에 오히려 시 간이 소요되고 다소 고되기까지 한 성경필 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대단합니다. 성 경필사우동 (기린(基隣)성경필사)라고 이 름을 붙였습니다 '기'(基)는 그리스도 예수 님을, '린'(隣)은 이웃을 뜻합니다. 주님 사 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배우 고, 이를 실천하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이 한자 '基隣'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동일한 발음 '기린'으로 읽힙니다.

저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이 기린성경필사에 참여하



실 수 있습니다. 기린성경필사 사이트 (http://biblewriting.ikahochurch.com)에서 제공되는 성경필사 원고지 파일을 다운 받아 필사한 후 사진을 찍어서 메일 (ikahochurch@gmail.com)을 보내주시면 때마다 필사 진행상황 보고서를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린성경필사를통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깊게 알게 되고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소망합니다.

4. 성경소설 연재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성경 소설 〈요셉의 재회〉를 한국어와 일본어

의 2개 국어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http:// joseph.ikahochurch.com) 성경소설은 한 국에서는 많이 낯설지만 미국에서는 인기 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성경 내용에서 벗 어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인 은 물론이고 비기독교인 대상으로도 성경 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도구가 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창세기를 읽던 중 요셉의 행동에 몇 가지 의문이 생 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 총 리가 되어 형제들과 재회할 당시 보이는 일 련의 행동들에 대한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의 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주된 해 석은, 요셉이 형제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 하여, 또는 이복형제들이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자기처럼 내버리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 입니다만 저로서는 이와 같은 견해가 대단 히 부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성경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요셉이라는 인물 을 재구성하고 성경의 본래 내용에 충실하 되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과 위대한 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연재를 하고 있으며, 기 회가 된다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출판하 여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양국 대중의 관 심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교회 역시 최근 조금씩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수는 적지만 한 분 한 분이 저희에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작년부 터 출석하시는 일본인 자매님은 신앙은 없 지만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교회에 나오셨 는데 갑작스레 모친상을 당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모친상 이후 우울증으로 직장 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는데 다시 교회에 나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생활에도 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린성 경필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 본인 성도가 생겨 식사시간에는 한국어,

일본어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야 기꽃이 피고 웃음이 넘칩니다. 비록 규모 는 작아도 한국인과 일본인이 모두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 는 따뜻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개척하는 일은 고되고 어렵지만 주 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작고 미 약하며 가난한 시골 교회이긴 하나. 주님 께서 제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하나도 땅에 묻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려 합니다. 여러 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 **※ 한국** 국민은행 079-21-0736-251 홍성필 일본 群馬銀行(군마은행) 店番号 190(渋川支店) □座番号1992256 ホンソンピル 홈페이지&E-mail http://www.ikahochurch.com. ikahochurch@amail.com

끝으로

아직도 한국인에게는 낯선 군마현 제 가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군마현, 그 러나 이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 면서 군마는 제게 주님께서 부흥을 약속하 신 땅, 일본 부흥과 세계 부흥의 중심지가 될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일본 지도를 펼쳐보면 군마현은 일본의 정 중앙에 있으 며, 저희 이카호중앙교회가 있는 시부카와 시는 그 군마현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 다. 일본의 한가운데에서 복음의 불모지